영암읍 일대 '365 생활권'으로 묶인다

30분 내 보건·교육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
사업비 429억 확보 생활권 구축
농촌 정주여건 개선·균형발전

영암읍 일대가 '365 생활권'으로 묶인다.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4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영암읍 등 '365 생활권' 구축사업에 속도를 내게됐다고 7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365 생활권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투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365 생활권'은 30분 내 보건·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3),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6),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5)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암군은 농촌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참여했다.

이 계획에는 영암읍 농촌생활권 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마을 배움나눔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영암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읍 농촌생활권에 5년간 국비 300억원을 포함, 42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영암읍 농촌중심시 활성화사업 130억, 덕진·신북·금정·시종·도포·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30억, 기타 역량강화사업 69억 등이다.

앞서 영암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읍·면별 현안 의견수렴을 위한 생활권추진위원회와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전문가 자문 등도 거쳐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분위기 확산에도 공을 들였다.

영암군은 공모에 제출한 계획의 보완·승인 절차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촌협약 공모 선정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다"면서 "농촌협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이 행복한 영암의 기초를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 농수산물 첫 호주 수출길

쌀·꽃게·김·젓갈류 시드니·혼스비 등 한인마트 납품

진도의 농수산물이 호주 수출길에 오르면서 지역 농수산업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이끌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이달 초 진도 꽃게, 곱창김, 젓갈류, 건해산물과 진도쌀 등 5t(5만 달러) 가량의 농수산물이 호주 시드니와 혼스비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수출된 진도 농수산물은 호주 한인마트 등에 납품돼 교민들과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번 수출을 통해 진도군의 농수특산물 품목과 물량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우수 농수산물 통합 관리와 마케팅을 통한 유통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인 농수산유통사업단을 지난 1월 신설, 첫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최근 K-푸드의 전 세계 확산과 맞물려 진도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과 농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 초등학교 입학생 314명에 축하금

군 교육재단 첫 사업…20~30일 읍면사무소로 신청

해남군이 올해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314명에게 입학축하금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입학축하금 지원은 해남군 교육재단이 설립 이후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해남사랑상품권 30만원을 입학축하금으로 주기로 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14명이다.

입학축하금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해남군 교육재단은 지난 2월 '지역민과 함께 키우는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을 실현하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해남군 평생학습관 1층에 둥지를 틀고 오는 7월께 전담 조직 인력을 갖추고 개소할 예정이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해남군 교육재단은 앞으로 장학사업과 초중고 교육지원사업, 평생교육, 성인문해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학생·청소년 안전 교육, 학부모-자녀 간 성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교육재단의 설립으로 교육도시 해남의 청사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첫 사업인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조직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134억 들여 원도심 도시재생

중앙마을·옛 문화원 인근 등 빈집 정비·공공 건물 신축 등

완도군은 완도읍 군내리 옛 대중의원 자리에 주민 쉼터를 조성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완도읍 중앙시장과 옛 문화원, 군내리 옛 대중의원 자리에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 '원도심 활성화'에 나선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완도읍 중앙마을(중앙·주도·서성·용암리)과 옛 문화원 인근, 군내리 옛 대중의원 부지 일원이다.

우선 완도군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완도읍 중앙마을에서 134억원을 투입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오래된 집 23곳을 수리하고, 빈집 3곳을 철거했다.

작은 공원과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휴게 시설을 설치한다. 용암리와 서성리에는 폐쇄회로(CC)TV를 갖춰 안심 골목을 만들 계획이다.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완도군은 A동을 매입해 철거한 뒤 통합 공공건물을 신축할 방침이다. 이곳은 지역민들이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다.

또 상인과 방문객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주요 먹거리를 개발하고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는 '전통시장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을 통해 용암리·서성리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승강기를 설치했다.

이 밖에도 완도읍 군내리 옛 대중의원 부지에는 갖가지 꽃과 나무를 심고 의자와 정자를 설치해 주민 쉼터를 조성했다.

완도읍 옛 문화원은 '도시재생 인정 사업'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완도군 청소년상담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사업과 해양치유와 역사, 문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과도 연계해 관광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초당산 황토숲길 맨발로 걸으며 '오감 만족'

박홍률(앞줄 오른쪽) 목포시장이 개통식 후 관계자들과 함께 초당산 '황토 맨발길'을 걷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둘레길 1㎞ 개통…한 달만에 하루 200명 찾는 명소로

목포시가 부주동 초당산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하는 등 명품숲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옥암신도시 심장부인 초당산(옥암유치원 옆, 부주파출소 건너편)에 맨발 둘레길 1㎞를 조성해 개통했다고 6일 밝혔다.

목포시의 맨발길 조성은 양을산 '맨발로 청춘길'에 이어 두번째다.

시는 초당산 맨발길에 세족장과 음수대, 흙먼지 털이기, 신발보관함, 휴게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일상을 응원하는 감성 문구를 부착했다. 또 경사면에는 보랏빛의 맥문동 꽃과 왕벚꽃나무를 식재해 단조로운 숲길에 계절의 색깔을 입혔다.

초당산은 신도심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시는 이번 맨발길 조성으로 주변 시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몸과 마음이 청년이 되는 '오감만족 맨발길 걷기 행사'를 갖고 맨발 길을 정식 개통했다.

지난 5월 중순 임시개통한 이 곳은 아름다운 맨발 숲길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200여 명이 찾는 걷기 명소가 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옥암수변 뚝방길 1.0㎞, 양을산 편백향길 1.2㎞, 산정산 느림길 1.5㎞, 대양산단 힐링길 1.5㎞, 대삼학도에는 무장애길을 조성해 건강한 맨발길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초당산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곳으로, 유치원·초등학교·주거단지와 가까워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숲길의 매력을 느낄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광군, 경로당 391곳 방문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인지 검사

영광군이 지난 2월부터 경로당 391곳 이용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인지선별검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는 경로당 132곳 이용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과 검진을 하기도 했다.

이번 검진에서는 14명의 치매 환자를 조기 발굴하고, 5명의 경도 인지장애 증상을 확인했다.

순회 교육에서는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실천과 인지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치매가 있다고 해서 시설이나 병원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영광군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2.6%로, 전남 평균(12.2%)과 전국 평균(10.4%)보다 높다.

군은 지역 치매 추정 환자 2017명 가운데 1986명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영광지역 고령화율은 30.8%로, 영광군은 심각한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에서 무료 인지선별검사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군민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조기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군 짚공예전승반 어르신들 실력 발휘

짚풀공예 공모전에서 다양한 수상 성과를 거둔 진도군 노인일자리 사업 짚공예 전승반. 〈진도군 제공〉

원주시 역사박물관 짚풀공예 공모
은상 1·장려상 2·입상 1명 수상

진도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짚공예 전승반이 짚풀공예 공모전에서 다양한 수상 성과를 거뒀다.

짚공예 전승반은 최근 열린 '22회 원주시 역사박물관 짚풀공예 공모전'에 참가해 은상 1명, 장려상 2명, 입상 1명의 수상 성적을 냈다.

수상의 주인공은 은상 김양신씨(맺고리), 장려상 이기녕씨(맺고리), 장려상 홍성추씨(녹차맷방석), 입상 김병욱씨(항아리) 등이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올해 22년째 연 이번 공모전은 사라져 가는 민족의 전통 짚풀공예 기능을 전승하고 농한기 농촌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해 개최됐다.

짚풀공예는 농사를 짓고 나서 얻은 부산물인 볏짚과 보리 짚 등을 이용해 짚신, 삼태기, 망태 등 생활용품을 만들거나 메뚜기나 동물 같은 것을 본떠 만드는 조형 예술이다.

진도군 짚공예 전승반은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해 민속공예품을 만들고, 제작 기법을 전수·계승하고 있다.

진도군의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1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원 늘었다. 올해 총 3090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